

마음 비우고 진정한 농사꾼으로 거듭나라

■ ‘땅의 부름’ 귀농, 실패 않고 성공하는 법

◇ 마음을 비워라

서울에서 30여년 동안 살면서 개인 사업을 하다 지난해 11월 부인의 고향인 강진으로 귀농한 송영갑(59·강진군 군동면)씨. 송씨는 나이가 들면 땅을 모시고 시골에서 살리라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케이스다. 현재 오리 1만5천여 마리를 키우면서 농촌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수익을 내는 일이 쉽지 않고 말한다.

송씨는 “내가 귀농을 선택한 것은 시골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서”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생을 농촌 어른들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고 귀농의 이유를 말했다. 도시 생활을 하다 가끔 들르는 고향이 너무 고령화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는 것이다.

송씨의 경우 귀농한 결과 얼마 안돼 성공이나 실패나를 따지기 곤란하지만, 일단 돈에 대한 큰 욕심 없이 마음을 비워다는 점에서 훌륭하게 정착할 가능성은 높은 셈이다. 게다가 부인과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도 큰 힘이 된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처음에는 “왜 사서 고생이니”며 말렸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 하니 다행”이라며 밀어준다.

송씨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인 귀농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귀농학교 오남준 사무국장은 “독적의식은 둘째 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농촌의 동네 아자씨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적성에 맞는지 고려하라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농촌 생활에 귀농하려는 사람의 적성에 맞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귀농을 하기 전 도시 텃밭을 키우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귀농학교에서 이론 수업 외에 체험 형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귀농학교 3기 수료생 장지윤(여·51·장성군 진원면)씨는 지난 2005년 광주 생활을 접고 남편과 함께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완벽한 귀농으로 보기 힘든 것은 남편이 아직 광주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 앞의 50여평 텃밭을 일구는 생활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장씨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부부에게 알맞는 귀농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남편의 청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10년 후쯤을 목표로 하나님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가 말하는 귀농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장씨는 “귀농 후 소득 수준이 떨어져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일이 벅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라면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인식 자체가 아닌 삶의 일부만을 바꾸는 경우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장씨의 경우 귀농한 결과가 얼마나 안돼 성공이나 실패나를 따지기 곤란하지만, 일단 돈에 대한 큰 욕심 없이 마음을 비워다는 점에서 훌륭하게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부인과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도 큰 힘이 된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처음에는 “왜 사서 고생이니”며 말렸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 하니 다행”이라며 밀어준다.

송씨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인 귀농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귀농학교 오남준 사무국장은 “독적의식은 둘째 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농촌의 동네 아자씨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신용 상태가 부실화되는 일은 재정 문제였다. 땅은

염려할 것이 없었지만, 현재 소 10마리를 키우는 임씨에게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귀농에 반대했던 부인이 임씨의 소득이 시원치 않아 초부터 막고 함께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즐거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려기 아빠’ 신세가 됐다.

임씨는 “아직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농촌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며 “다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기댈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임씨의 경우 특히 초기 3~5년 동안은 소득을 좀처럼 올리기 힘든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어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다.

임씨는 동네 어른들과 친해지는 일을 두려워 말라고 종종 한다. 임씨는 “농사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대인관계도 귀농의 키포인트”라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만 빼면 도시 생활을 할 때보다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안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옥주(오른쪽)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운영위원장이 최근 열린 1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나옥주 귀농학교 운영위원장

“단순 귀농 교육 탈피

작물 판로 개척 지원”

“귀농은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의 삶을 대신할 ‘대안 문명’을 찾아나서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올해로 10년째 맞는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나옥주(59) 운영위원장은 이같이 귀농의 정의를 내렸다. 나 위원장 역시 지난해 11기 수료생으로 귀농학교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장흥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귀농학교는 지난 1998년 4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가 주관해 처음으로 강좌를 개설했다.

귀농학교를 거쳐간 사람은 모두 12기수 380여명. 강좌는 13~15주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해부터는 4~5주 과정의 ‘도시텃밭학교’를 개설해 2기생까지 배출했다.

나 위원장은 “귀농자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IMF 직후보다는 못하지만 월빙이나 텃밭 가꾸기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심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귀농학교 수료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카페(cafe.daum.net/landlovers)를 개설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앞으로 귀농학교는 단순히 귀농자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확한 작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귀농을 위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3기 귀농학교는 내년 봄에 문을 연다. 문의 062-373-6183.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① ③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개설한 ‘도시텃밭학교’ 참가자들이 눈에서 풀을 뽑기를 하고 있다.

②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12기생들이 광주시 북구 장흥동 실습장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시골서 농사나 짓지 뭐
안이한 생각은 금물
도시 텃밭·주말농장
운영해 보며 사전 체험”



“삶의 일부만을 바꾸는

귀농은 백번 실패

가족들 든든한 지원

동네와 친해지는 건 필수”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223-1140, 020-701-001-602-252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간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층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 010-383-5221 휴 011-603-5221
(삼우지구 입구)

건물투자

- 보증금 36억 원세 3,000만원(서악리 고성리) 용지 12평 예비 매입(토지와 교통기능)
- 동구동 900평 1층 200평 건/725평(신축) 풍수지리 보증금 10억 원, 1,500만원에 상 매가 35억 원
- 보증금 5억 원세 1,500만원 매가 19억(고시판)
- 보증금 약 원세 2,200만원 예가 10억(상우지구)
- 보증금 약 원세 700만원 예가 6억(상우지구)

땅투자 (상우지구)

- 850평 원세 900만원 예가 80평(200평)
- 120평 원세 650만원(상우지구)
- 100평 평당 800만원(시장역입구)
- 130평 평당 850만원(상우지구)

도토리매매

- 상우지구 대식 34개 풍수지리 12평 예가 18억
- 상우지구 대식 35개 풍수지리 18평 예가 25억

상가·사무실 (상우지구)

- 상가 90평 보증 5천만원 예가 10억 원세 650만원 예가 800평(10평)
- 지정 30평 원세 69평 평당 390만원

임야 (농장)

- 광산구 동신동 212평 원세 평당 11만원(상지리) 예가 12억 원세 18평 예가 25억 원세 15평 예가 10억 원세 15평 예가 800평(20M도로)

건물, 창고 및 기타

- 광온동 대지 155평(20M도로) 평당 265만원

정우부동산

☎ 010-375-4708~7 휴 011-603-4788
(봉산동 한일병원부근)

건물급매

- 대지 260평 건물 1600평 지하1층 지상8층 예매가 9억5천 보증금 1억 2천만원 원세 1000만원 물자 4억원
- 주월동 한일병원부근 대지4평 건물 1800평 지하1층 지상5층 예매가 8억 보증금 약 원세 1000만원

토지급매

- 봉산동 1동 60평 원세 200만원 예매가 150평 원세 200만원
- 12평 원세 80평 원세 100만원 예매가 100평 원세 100만원

도시주택

- 10평 원세 100만원 예매가 100평 원세 100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10-372-4585 휴 011-604-6205
(첨단지구 부암 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 대주택, 둘류창고, 특지 실버시설
- 첨단 종신상업지역 1100평 주·상·복합시설작합

첨단 빌딩 임대

- 메디힐 빌딩 1층 60m2대로변 1층 160평(은행무대)

첨단 중심 상업매매

- 정부지청 100평 지상1층 1000평 예매가 100평 원세 10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 대8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원495만 예5495만 원3천만
-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예480만 원480만 원3천만
-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예480만 원480만 원3천만
-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예480만 원480만 원3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 보현동원 부령아파트 앞 250평
- 신장동 제방도로부근 1080평
- 신장동 보건대 미술부근 510평
- 도천동 광단 80평부근 450평
- 700평 금강, 창고 적합
- 부곡 지상동 30m도로에 인근 700평
- 210평 원세 250만원 예500만 원

시외내농지

- 광산구 삼도 1000평 예500만 원
- 광산구 삼도 1000평 예500만 원
- 서구 미곡동 1500평 예500만 원

주유소 부지

- 동구 1500평 예500만 원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시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물

- 주월동 5의 별관의원매매 대600평 지상5층 주거지역 1층 1000평 예500만 원
- 99억 8천 빌딩 금리 240P 건865만 대여보증 1000평 예500만 원
- 79억 7천 빌딩